

2020 광주광역시립미술관 예술제 전시회

그리움

전시기간 2020.10.28.(수) ▶ 11.6.(금)

전시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



2020년도
광주교직원예술제 전시회

기간 DISPLAY
2020. 10. 28.(수) ~ 11. 6.(금)

장소 PLACE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



2020
광주
교직원
예술제
전시회

전시기간
2020.10.28.(수) ▶ 11.6.(금)

전시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



인사말씀

광주교육 가족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의 고단한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온 정성을 쏟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지친 심신을 달래고, 위로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 광주교직원예술제' 전시 작품에는 코로나로 인해 무심히 스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벚꽃 흩날리던 우아한 봄날의 따사로우음, 태양 가득하고 찬란한 여름날, 노을 빛깔 담은 가을 정취와 잃어버린 일상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들은 우리에게 소박한 행복을 안겨주던 소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으니, 머지않아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 출품작에는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 삶 속에서 무던히 가꾸어온 예술을 향한 열정과 즐거움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예술로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시회를 빛내 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열정으로 맺은 결실의 전시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회 작품 향유를 통해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40cm × 60cm | 매화 |

매화의 향기 천년까지 맑으리



70cm × 140cm | 목국 |

고고한 맑은 향기 가을 빛에 물드네



70cm × 140cm | **매화 향기** |

힘차게 뻗은 나무등치와 가지에 핀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린다.



60cm × 30cm | **솔바람 향기** |

솔바람과 솔향기가 가득한 순간은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닮아있다.



50cm × 40cm | **가을 정취** |

풍요로운 가을의 한 때,
문득 소박한 행복을 마주할 때,
아름답고 그리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60cm × 30cm | 철쭉 |

두견새 울적마다 한 송이, 한 송이 피어



60cm × 30cm | 국화 |

늦은 절기의 그윽한 향기



60cm × 30cm | 구절초 |

맑은 바람 향기로운 이슬



60cm × 30cm | 동백 |

나무에서 땅에서 마음속에서 피는 꽃



김 광 옥 전) 수완고등학교



118cm × 62cm | **밤바다** |

사방은 고요하고 파도소리 귓가를 간지럽히는
날마다의 일상이 계속되는 곳.
여행길에 마주친 풍경에 먹빛 가득 부어 본다.



조 강 옥 장덕초등학교

45cm × 60cm | **남해풍경** |

여름날의 남해 풍경





김 영 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73cm × 53cm | **제석사의 여름** |

제석사의 여름은
신록의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최 진 우 수원중학교

75cm × 57cm | **무등전도 2019** |

무등산 전경을
한 폭에 담아 본다.





61.5cm × 45cm | **아모르 파티** |

5월에서 9월이 되면 길가나 논둑,
빈 터에 귀여운 자태의 홍자색으로
피어나는 지칭개꽃!
몇 개월 선보이다 훌쩍 사라지는
두해살이 지칭개꽃의 올망졸망
얼굴 맞대며 피어나는
사랑스런 모습



원 종 선 광주공업고등학교

53cm × 41cm | **가족** |

가족은 알고 있다.
무심한 듯 바라보는 시선 속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무뎠하게 다독이는 손길 속에도
무탈한 일상의 기원이 담겨 있음을



조 승 현 광주공업고등학교



36cm × 25cm | 여름날의 백일홍 |

한 여름의 백일홍
여름 내 붉디 붉어라.



정 순 용 선창초등학교



41cm × 32cm | 기다림 |

분홍 백합이 만개하기 까지



김 종 안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90cm × 35cm | 봄, 봄 |

봄은 여백이다.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 모두에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의 기록들을 비워둔 저장고다.



강 은 주 양산중학교

60.6cm×72.7cm | **망각... 그리고 위안2** |

양귀비를 여러 방향에서 관찰하고 표현함으로써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여자로서 가지는
몽환적 꿈의 세계를 좀 더 세분화한 표현으로
모든 이와 공감하는 정서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고 양 배
전남공업고등학교

110cm × 80cm | **산(山)** |

'산(山)'은 생명과 죽음을 담고
소생과 순환으로 무한 변화한다.
부모님 같은 든직함과
포근함이 있는 그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산(山)'이 되어 계신다.
'산(山)'을 사랑하는 우리들과
'산(山)'이 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일필일획(一筆一劃)으로
그려 보았다.





19cm × 24cm | **The Academy of Athens** |

그리스의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는 아테나 여신의 위엄, 우아한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이 돋보이는 신고전주의 대표 건축물. 아테네 국립학술원에 마주 앉아 그날의 감동을 담다.



19cm × 24cm | **오후 햇살 머금은 아테네 대성당** |

한 겨울에도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이 충만했던 오후, 아테네 대성당 벽면에 빛나는 오후 햇살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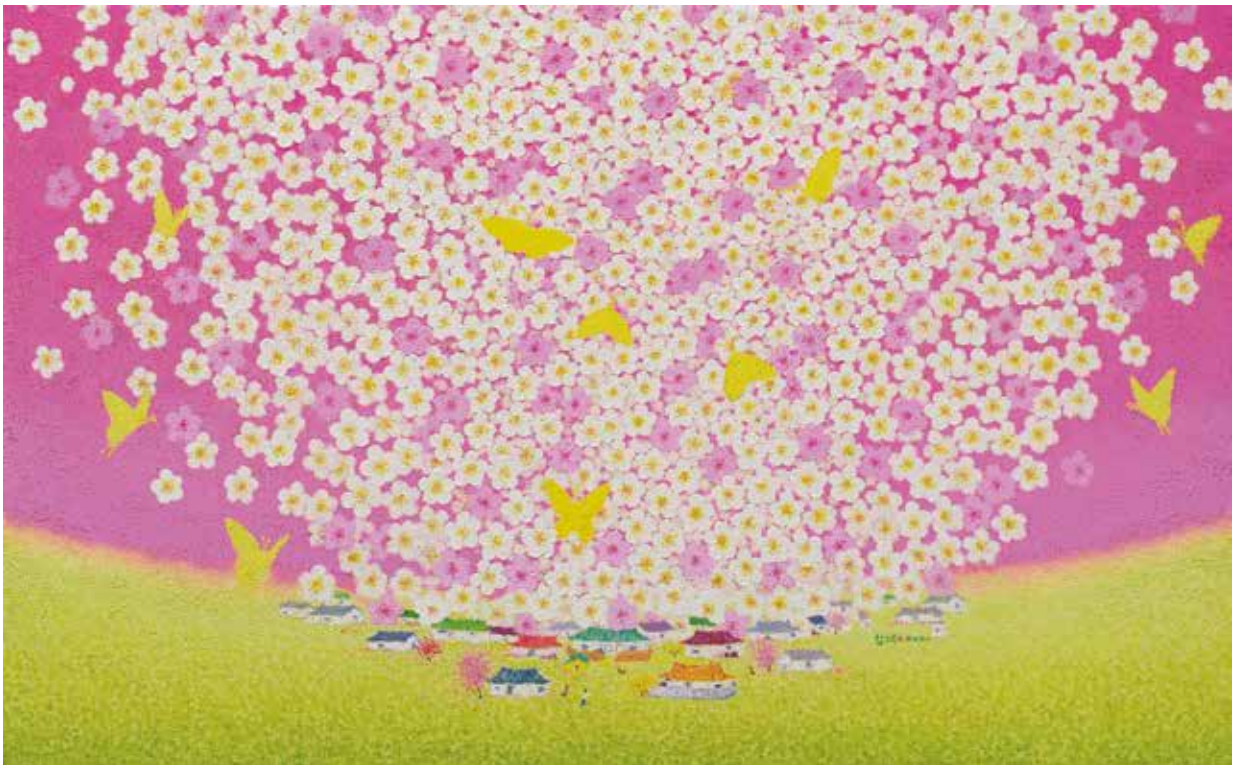


○
선 성 희
송정중학교

53cm × 45.5cm | **봄봄** |

무심한 듯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유채꽃은
꿈틀대는 봄의 아우성

○
김 성 대 상무고등학교



116.8cm × 72.7cm | **달이 꽃이어라** |

만발한 살구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피어나게 한다.
고향 떠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도시인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이 꽃처럼 피어 오르길



이 용 일 선운초등학교

90.9cm × 65.1cm

| 2020 벚꽃 엔딩 |

봄이 왔는데도 봄이 온지 모르고
꽃이 피었는데도
꽃이 피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2020년의 봄은 스쳐갔다.
활짝 핀 벚꽃 풍경이
무심히 스쳐갔듯
코로나의 힘든 시기도
그렇게 스쳐가길...



김 상 현 서강고등학교

90.9cm × 65.1cm

| 현천마을 산수유 풍경 |

지리산 산수유 피는 현천마을
저수지 쪽빛 물도 물들인 산수유
존재자의 발길도, 마음도 물들인다.

○ 신 선 미 풍암중학교



27cm × 45.5cm | 어두운 밤하늘에 달과 별 |

밤에 보이는 어두운 하늘에 그 중 빛나는 달과 별들을 표현하였다.
태양이 지고 난 후 깨끗한 밤에 반짝이는 달과 별의 모습은 맑고 청량한 서정적인 한 폭의 그림안에 들어가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준다.

○ 최 여 니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53cm × 80.3cm | 休 |

오후의 따사로운 색채와 한 줄기 햇살,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해 평온함과 고독함이 공존한다.

○ 최 지 영 진월초등학교

90cm × 72.7cm | Entrance |

우리나라 봄에 벚꽃이 피듯 호주의 봄에는 보라색 꽃나무인 자카란다가 핀다.
보라색 꽃이 흐드러지게 핀 환상적인 봄의 입구로 들어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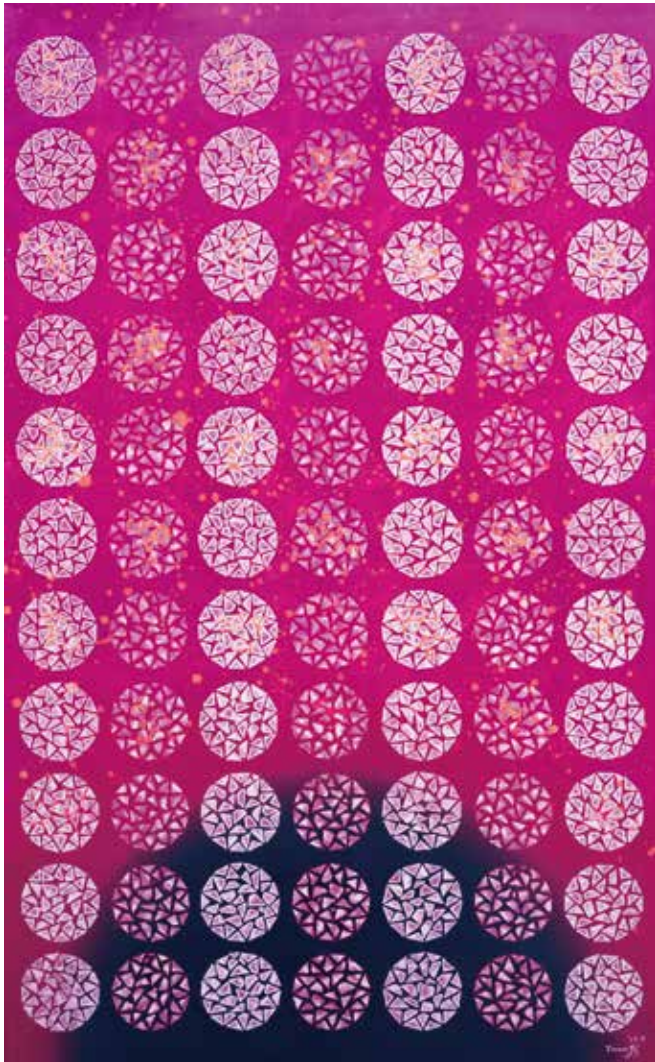


16cm x 22cm | Hug |

포옹은 따뜻한 사람들의 표상이다. 우주 만물은 모두 제각각인 듯 보이지만 실은 서로가 연계되어서 존재하며 끊임없는 변화의 공존상태인 것이다. 사람들과 자연 또한 무관하지 않으며 더욱이 사람과 사람의 포옹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사랑이다. 매일의 작업 속에서 나 또한 하나의 포옹 -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다.



표준성 광주예술고등학교



72.7cm × 116.8cm | **Circle** |

오와 열을 맞춘다.



송유미 광주예술고등학교



78.8cm × 109cm | **Drawing 20-64** |

점이 힘을 받아 운동하면 선이 된다.
 선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에 대한 가능성을 품는다.
 수 만가지 형태의 가능성으로 선은 에너지를 갖는다.
 하지만 면이나 덩어리의 형태로 엮이는 순간
 그 에너지는 순해진다.
 작가의 관심은 에너지를 품은
 선을 표현하는 데 있다.



조 수 옥 광주예술고등학교



25cm×20cm | **The Fruits** |

“(중략) 인생의 열매를 누가 가늠할 수 있겠는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하였다고,
풍족한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열매없는 삶이라고
회한에 사로잡힐 수도 없는 것이다.
(중략) 주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그 자체가 열매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진정한 내 인생의 열매를 볼 수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날 그날일 것이다.”(치유상담교육연구원 오인숙 교수 글 중에서)



고 명 인 하백초등학교



45.5cm × 53cm | **꿈을 열다** |



72.7cm×92.9cm | **euphoria-I** |

‘프레임을 통해 나를 보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작품. 미셸 푸코는 프레임에 대해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 인식 체계(Episteme)가 나를 빌려서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삶은 진정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져 가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도 있는 모순적 측면이 존재한다.



홍 기 호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38cm × 45.5cm | **비상** |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하는 한 마리 새가 되어



노 미 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72.7cm × 90.9cm | **DREAM 2020** |

꿈을 꾸고 쉬를 품은 안락한 공간
꿈속 이야기를 담은 자리





김 미 현 광주동운초등학교

45cm × 45cm | 불일암의 연꽃처럼 |

무소유 법정의 불일암 뜰에서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피어난 치자꽃



류 만 숙 월봉중학교



60cm × 40cm | 고운 인사 |

면발치에서 노보살을 부르는 스님 “보살님, 공양 드시고 가지지요.”
고운 인사로 답을 대신하는 노보살, 붙들던 스님도 합장으로 고운 인사



50cm × 25cm | **황룡강변 가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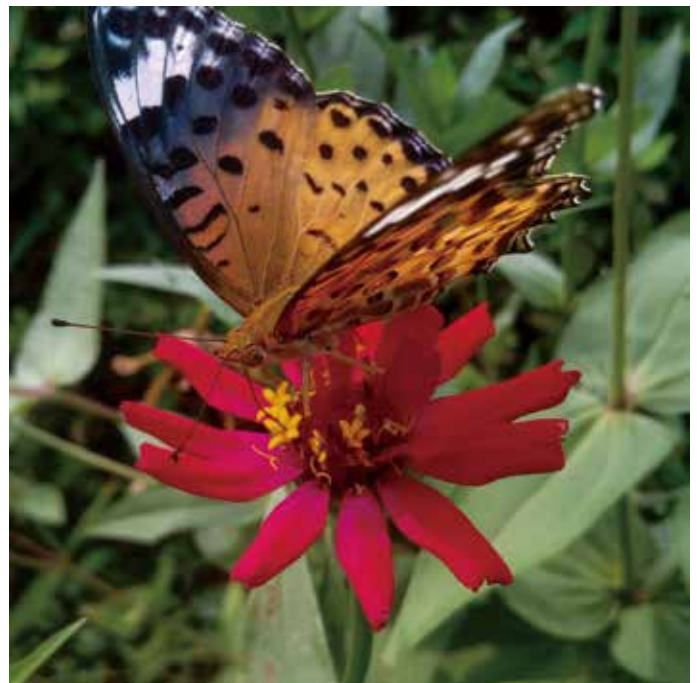
있는 떨어지고 저물어 가지만, 풍성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풍경에서 우리네 인생을 본다.



박 수 희 광주광역시교육청

45cm × 45cm |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있는 거야** |

대단한 지위와 빼어난 생김새가 뭐 대수라고
욕심내지 않고 순리에 거스르지 않고
꿀을 먹고 가루받이를 하고
꽃가루를 머금어 씨앗을 잉태하는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있는 거야.





45.5cm x 38cm | **봄 2리고 가을1** |



45.5cm x 38cm | **봄 2리고 가을2** |

조금은 다른 일상을 기획해 본다.
한 인간의 일상, 모든 기록을 사진과 메모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하루에 대해 재조명해 본다.
별 의미 없이 이루어졌던 행위들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한 인간의 삶을 반추해 본다.



28cm x 54cm | **아름다움 in 학교** |

학교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바로 이 모습들이 아닐까?



○
최 은 속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0cm × 28cm | 하늘과 구름과 달 |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붙잡아질리 없건만
아쉬운 마음에 붙잡아 본다.
매 순간 변하는 마음 붙잡아질리 없건만
부여잡으며 살듯이

○
박 진 속 상무중학교

42cm × 30cm | 순천만의 가을 |

가을 풍경 속의 바람에 속삭이는
갈대들의 무리와 여백의 조용한
강물의 잔잔한 흐름이 삶과 닮아
사진 속에 담았다.



○
이 미 영 영천중학교

50cm × 25cm

|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 |

강진생태공원
드넓은 갈대밭 사잇길을 걸어오는
아름다운 사람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든다.
여보!



백 옥 주 광주양산초등학교



30cm × 42cm | **2대 걸어 오리라** |

고즈넉한 가을 저녁 꽃무릇 무성한 솔밭 길 끝에서
보고픈 그대 기다리는 내게로 걸어 오리라.



손 수 경 수완중학교



45cm × 45cm | **인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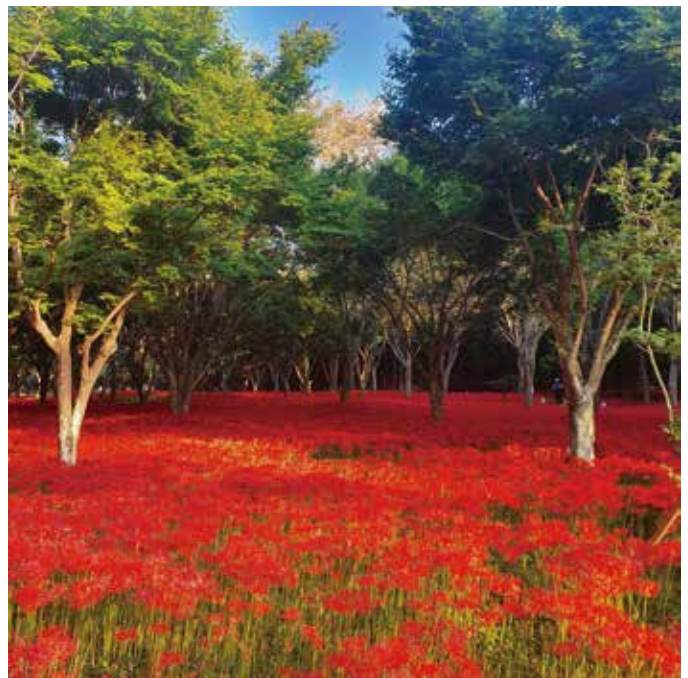
이번 생애에서 못다 이룬 사랑
다음 생애에서 아련한 인연이 되어 우리 사랑 불꽃 바다로 물들이길



이 현 미 각화초등학교

45cm × 45cm | **불꽃** |

꽃무릇 흐드러진 들판을 본
우리 아들의 첫마디
와~~ 불꽃이다.



○
박 유 정 대자초등학교

40cm × 20cm × 15cm | 특수학급의 일상 |

특수학급 일상 속 아이들의 희로애락



○
김 정 혜 대반초등학교

94cm × 97cm

| 소나무와 노랑나비 |

우리는 각자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한결같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소나무
자유를 갈망하며
푸른 하늘로 날개짓하는
노랑나비



신 다 성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35cm × 35cm | **2날의 달** |

쌀쌀했던 그 날
함께 걸었던 그 날
높은 하늘 선명히 떠 있던 그날의 달



최 순 식 전남공업고등학교



110cm × 40cm | **스승과 제자** |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 시절의 고독과 제자 이상적과의 의리가 담긴 세한도.
역사적인 작품을 서각해 보면서 김정희의 당시 심정을 느껴보고 싶었고,
추사체를 서각을 통해 그대로 써 보고 싶었다.


2020년도

광주교직원예술제 전시회

| | | | |
|-----|-----|-----|-----|
| 강은주 | 김정혜 | 신민선 | 조수옥 |
| 고명인 | 김종안 | 신선미 | 조승현 |
| 고소교 | 노미라 | 원종선 | 최상국 |
| 고양배 | 류만숙 | 위주란 | 최순식 |
| 김광옥 | 박수희 | 윤준성 | 최여니 |
| 김미현 | 박유정 | 이미영 | 최은숙 |
| 김상현 | 박진숙 | 이용일 | 최지영 |
| 김상혜 | 백옥주 | 이현미 | 최진우 |
| 김성대 | 선성희 | 임수준 | 홍기호 |
| 김수옥 | 손수경 | 임혜숙 | |
| 김아솔 | 송유미 | 정순용 | |
| 김영의 | 신다성 | 조강욱 |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쌍촌동 1268번지)



그리움

전시기간 2020.10.28.(수) ▶ 11.6.(금)

전시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처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 서구 화운로 93번지
T. 062-380-4500 <http://www.gen.go.kr>

이 도록에 실린 모든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사진 및 도판의 사용을 금합니다.